



제목	Gods Carved in Stone: The Hittite Rock Sanctuary of Yazilikaya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Ege Yayinlari
발행일	2011. 12. 31.
저자	Jürgen Seeher
출판도시	Istanbul
페이지수	208
ISBN 또는 ISSN	978-6055607548

**내용 요약**

터키 동부에 위치한 고대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샤(Hattusha)의 유적인 보아즈콰이(Bogazkoy, Boghazkeui) 북동쪽 1.6km지점에 ‘글자가 새겨진 암벽’이라는 뜻의 야질리카야(Yazilikaya)는 히타이트 제국의 왕 투달리아 4세(Tudhaliya IV, BC 1250-1220))가 기원전 13세기에 만든 거대한 옥외 바위 신전이다. 이 바위 신전에 들어서면 당시 히타이트 제국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을 만날 수 있다. 바위에 새겨진 신들의 모습은 모두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신전을 건립한 투달리아 4세의 염원과 당시 고대 히타이트 제국의 문화적 정체성도 함께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독일 고고학 연구소(German Archaeological Institute)가 1931년 이래로 발굴 작업을 진행해 온 초기 발굴조사 결과물뿐만 아니라 최근 조사도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야질리카야 유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생생한 컬러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책의 구성을 보면 먼저 히타이트 수도 하투샤의 위치와 지형, 발굴과정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술하면서 야질리카야의 위치와 구조 및 부조 조각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바위 신전을 A실과 B실, 두 실 사이의 통로, C실로 나누어 각 실에 묘사된 부조 조각물에 대해 신화와 당시 복식 및 생활사를 포함하여 상세한 설명과 함께 바위 신전 앞에 위치한 사원으로 추정되는 건축물도 함께 다루고 있다.